

코트라, 60개국 유력 유통망과 K-소비재 수출 플랫폼 구축

86개국 132개 해외조직망 활용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확대
화장품·식품·패션 등 소비재 중심
현지 트렌드 맞춤형 유망제품 발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전 세계 60개국 유력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소비재 수출 플랫폼을 본격 확대한다. 해외마케팅부터 인증, 물류까지 아우르는 ‘소비재 수출 종합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코트라는 19일 해외 86개국 132개 해외조직망을 활용해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1무 1유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각 해외 무역관이 현지 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전경.

향력 있는 유통망을 발굴해 국내 소비재 기업의 입점과 판촉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50개국 298개 유통망과 협력한 데 이어, 올해는 협력 대상을 60개국 336개 유통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장품·식품·패션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트렌드에 맞는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구매상담 우선권과 계약 지원은 물론 입점 이후 온·오프라인 홍보까지 연계해 ‘수출 직결’ 성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코트라가 추진 중인 1무 1유 사업은 특히 신흥시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초고형 마트 체인 랜더스(Landers)와 정기 입점 체계를 구축했고, 방한 구매상담회를 통해 7개 기업이 입점에 성공했다.

칠레에서는 중남미 1위 온라인 유통

망 메르카도리브레(Mercado Libre)와 협력해 ‘한국제품 전용관’을 개설, 10개 기업이 첫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코트라는 입점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점→판촉(재고소진)→추가주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후 팝업쇼케이스,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 인증, 물류 전반에서 K-소비재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올해 코트라는 1무 1유 사업을 포함해 소비재 해외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K-콘텐츠와 연계한 종합 마케팅 행사인 한류박람회(6월), 하노이(9월) 열리고, 신흥국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재 쇼케이스 전시상

담회 ‘K-라이프스타일’도 중국과 멕시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물류 지원도 강화된다. 뉴욕, 하노이 등 20개 무역관에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신설해 국가별 인증·라벨링 규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현지 전문 컨설팅사와 협업해 취득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해외공동물류센터 중 소비재 특화 거점을 지정해 수입통관, 역직구, 항공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확대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비재는 K-컬처 확산과 선순환을 일으키며 수출 품목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세계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K-소비재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근로자 인권·안전 최우선… 현장중심 지원” aT, 美서 김치담그기 K-푸드 급식행사

박서홍 농협중앙회 신임 부회장
취임식 대신 현장방문 공식일정
농촌 인력난 해소·시설안전 점검

농협의 박서홍 신임 부회장이 ‘현장중심의 경영’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농업인 실익 증진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즉각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지난 13일 별도의 취임식 대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겨울철 시설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경기 안성의 고삼농협을 찾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력 부족은 농업 경영비 상승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을 지속 확대해 농가 부담을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왼쪽)이 13일 경기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현장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근로자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협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농촌 실익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회장은 또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특히 지게차 전기충전소와 입·출고장 등 화재 취약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는 취임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 방향으로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농심전심운동 전개를 통한 농업가치 확산 ▲목표 손익 달성을 통한 경영안정 기반 강화 ▲노사 간 격의 없는 소통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 공립고등학교서 행사 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 뉴욕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및 K-푸드 급식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맨해튼에 소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일 aT에 따르면 이는 미국 정부가 1월7일 공개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 김치(kimchi)를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권고식단으로 포함한 데 따른 행사다.

이 학교 11학년생 알렉스는 “김치가 매운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들어보니 샌드위치나 햄버거·타코에도 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수학교사 에밀리 켄 씨는 “김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김치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김치 담그기 체험 및 K-푸드 급식행사 /aT

를 자주 먹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치담그기 체험 후에는 밥과 김치를 비롯해 불고기와 잡채, 모듬전 등으로 구성된 K-푸드 급식 도시락이 학생들에게 제공됐다.

12학년생 제이든 학생은 “김치를 직접 담가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런 급식을 매일 먹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18곳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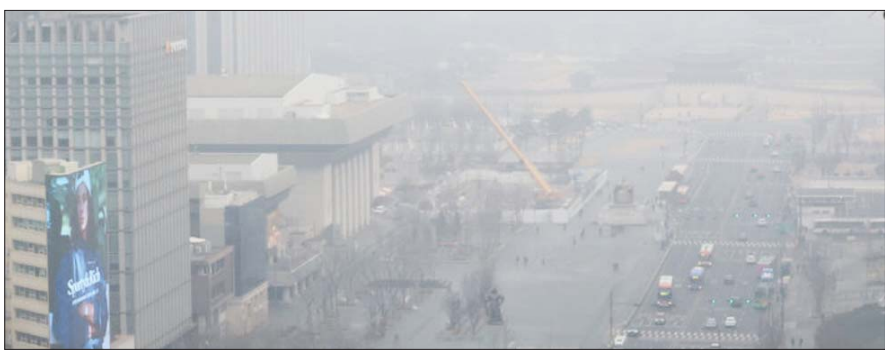
아스콘 업종 등 사업장 입지 지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경기) ▲황성군·인제군 소재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 및 단양군 단양로(충북) ▲천안시 소재 개별입지·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소재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과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지난 14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뉴시스

대상이다. 사전 기술 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모니터링 등 전주기 집중 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IoT 측정기기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개선 효과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

대기질 전·후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저감됐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 PM2.5) 농도는 2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해외시장 진출 물류기업 지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해양수산부가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물류기업 지원이 목적이다.

선정된 물류기업에는 해외진출 타당성 분석을 비롯해 현지 조사 소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10개 내외의 물류기업을 지원해 왔다. 물류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높이고 해외 진출 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의 한도는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물류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이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무·세무 등 외부 자문·용역을 받는 경우에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부담이 줄어들고, 타당성 분석의 전문성 역시 강화돼 해외투자 위험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인 해외사업 세미나(해수부·부산항만공사 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